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논문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

박상필
한일장신대학교

〈논문요약〉

한국 시민사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한 연구모델의 개발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에 대한 연구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구성체 중에서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구성요소 중에서 결사체에 집중한다. 그리고 결사체 중에서는 NGO에 초점을 두되, 다른 시민사회단체(CSO)도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전국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활동영역에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연구내용은 결사체의 형성·구조·가치·자원·활동 등 크게 5개 변수를 포함한다. 각 변수의 하위변수는 형성에서 4개, 구조에서 6개, 가치에서 6개, 자원에서 8개, 활동에서 8개 등 총 32개의 구성요소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모델이 한국 시민사회를 총

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체계적 연구를 위한 모델개발의 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시민사회, 현황파악, 연구모델, NGO

1. 머리말

한국 시민사회가 언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멀리 1890년대 동학혁명 전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가 하면, 1945년 해방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한다(고성국 1994; 김성국 2001; 박상필 2004; 손호철 2001; 신명순 1995; 유팔무 1995). 시민사회의 정의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슷한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사용하고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이제 겨우 25년 정도의 성장역사를 가진 셈이다.

25년의 성장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 시민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많은 결사체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결성되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공론장이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되었고,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가입, 자원활동과 기부금의 증가, 공공정책에서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발달, 시민사회에 대한 각종 정책의 형성 등에서 볼 때 한국 시민사회는 결코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오늘날 시민사회 바깥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시민운동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시민사회가 지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국제 협력·연대활동에 참여하고, 국가와 시장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시민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일정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1990년대에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1992), 시민단체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되기 시작했으며(박상필 1998), 시민운동현장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김광식 1999; 박원순 1999). 그러나 1990년대에는 대체로 외국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유팔무·김호기 편 1995; 주성수 1999).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마 2000년 한국비영리학회와 한국NGO학회가 결성되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기에는 시민사회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철학, 개념틀, 발전역사, 기능과 역할, 분류, 발생이론과 발달배경, 현황 등 주로 시민사회와 NGO의 학문적 토대연구가 진행되

1)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중심의 통치체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등으로 인해 다소 활기를 잃었다.

었다.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자원활동과 기부금, 거버넌스, 사회자본, 국제원조, 대안문명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다가 점차 실증적 연구, 사례분석, 비교연구 등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한국NGO학회나 한국비영리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여러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학회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의 각 영역을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의 규모, 역사, 역할, 구조, 전략, 자원, 가치, 활동 등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시민사회의 총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2)]

이 글의 목적은 실제로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 연구를 실행하는 하나의 연구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총체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이처럼

---

2)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가 각각 2003년, 2005년에 시비쿠스(CIVICUS)가 개발한 CSI(civil society index)의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시민사회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CSI의 모형은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결함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통한 측정결과를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후 2012년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연구소에서 시민운동의 측정모형(civic activism index)을 개발했으나, 이것은 시민사회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시민운동에 대한 측정이며, CSI와 마찬가지로 역량측정이라는 점에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공회대학교의 연구결과는 이남주 외(2005) 참조, 한양대학교 연구결과는 주성수 외(2006) 참조, 한일장신대학교의 시민운동 측정모형은 박상필(2013) 참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총체적인 연구가 빈약한 것은 이에 대한 연구모델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연구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그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진작하는 데 기초가 된다. 물론 국가와 시장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결사체 중에서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3] 특히 시민운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NGO의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CSO 중에서 시장과 시민사회 중간에 있다고 보이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기업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연구방법

한국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규범적인 연구도 있고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 문헌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도 있고,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도 있다. 각 연구는 시민사회의 핵심내용 파악이나 연구의 객관성 확보에서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3) 시민사회에 있는 각종 결사체들을 지칭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민사회의 모든 결사체를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 칭하고, 비영리단체 중에서 비영리병원, 사립학교, 복지관 등 기관형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결사체를 시민사회단체(CSO)라고 한다. 한편 NGO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조직을 말한다.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의 구분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144-157) 참조.

이미 출판된 문헌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고 해도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문지와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면 시민사회의 역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방식의 연구가 있음에도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이러이러하다고 기술하거나 설명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한 영역이나 한 측면만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조사된 한국 NGO는 12,657개였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비공식적 조직이나 풀뿌리NGO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NGO의 일부분만 조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매 2년마다 〈한국시민사회연감〉을 출판하지만, 이것은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한 사람이 집필하기 때문에 집필자의 주관적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아울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되, 시민사회의 활동현장에 있는 활동가의 진솔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베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활동가를 만나 인터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인터뷰라고 해서 정해진 설문지에 따라 단순하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연구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조직의 구조와 활동의 속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편견 없이 토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민사회의 각종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주요 시민사회 활동에 참관하여 관찰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 외에도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나 신문보도, 통계자료, 총람 등을 부가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국제적 비교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모델은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이고, 시간적으로 종단적이기보다는 횡단적인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범위

1) 사회구분 모델

사회라는 개념은 일종의 근대적 산물로서 주로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 국가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광의적인 의미의 사회는 국민국가를 경계로 하여 내적 통일성을 가진 사회적 관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광의적 의미의 사회는 정부, 의회, 법원, 기업, 정당, 노동조합, 미디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실 사회구분에 대한 논쟁은 로크(John Locke)의 〈통치론〉이나 헤겔(Georg Wilhelm Hegel)의 〈법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Hegel 1990; Locke 1996).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람시(Antonio Gramsci)를 비롯하여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킨(John Keane)과 헬드(David Held), 코헨(Jean Cohen)과 아라토(Andrew Arato) 등과 같은 시민사회 연구자들이 논쟁을 진행하였다(Cohen and Arato 1992; Gramsci 1987; Habermas

2006; Held 1989; Keane 1988). 그리고 크래머(Ralph Kramer)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섹터모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Gamwell 1984; Kramer 1981; Van Til 2000; Wuthnow 1991). 한국에서도 주성수, 박상필 등이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박상필 2001; 2011; 주성수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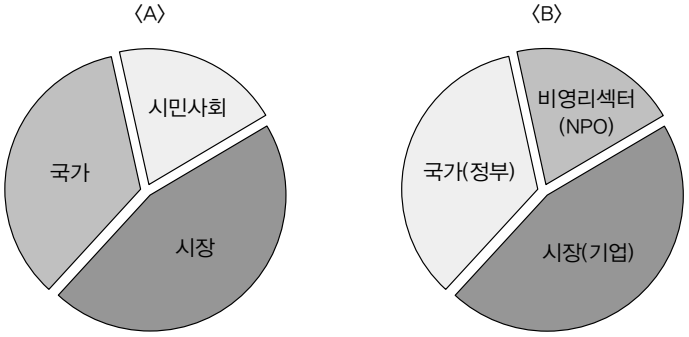
사회구분 모델에 대해서는 크게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모델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분모델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식의 사분모델도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체로 삼분모델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분모델은 경제로 환원하기 어려운, 기능과 작동원리가 다른 시민사회를 경제와 같은 영역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고, 사분모델은 국가·시장·시민사회 외에 개인, 가족, 공동체, 비공식 네트워크 등을 하나의 섹터로 간주하고 있는데, 섹터구분이라는 점에서 명료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로 부르기도 한다.[4] 국가의 대표적인 조직이 정부이고, 시장의 대표적인 조직이 기업이며,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섹터의 조직은 NPO(nonprofit organization)라고 총칭한다. 섹터 간의 이중선은 경계가 모호하거나 양쪽의 성격을 지닌 중간적인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각종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고, 언론기관·노동조합·협동조합 등은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 있으며, 정당

4) 국가와 시장 외의 영역을 시민사회로 접근하는 방식과 비영리섹터로 접근하는 방식은 그 속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의 견제, 공론장의 형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집단 간의 갈등, 공공업무에 대한 시민참여 등을 강조한다. 반면에 비영리섹터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자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체성이 강하다(박상필 2011, 92-9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과 국공립대학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5)]

〈그림 1〉 제3섹터 모델



2) 시민사회의 개념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가 가족, 자발적 결사체, 사회운동, 공공의 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Cohen and Arato 1992, 9-10).[6)] 이러한 규정은 어느 정도 시민사회의 구성적 포괄성을 충족시키기는 하

5) 정당을 시민사회에 위치시키는 학자도 있고(Salamon 1999), 국가에 위치시키는 학자도 있다(Wuthnow 1991). 그리고 파이 그래프에서 국가(35), 시장(45), 시민사회(20)의 크기는 한국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생산이나 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6) 사회구분 모델이나 시민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족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족을 개인과 국가 사이의 대표적 결사체로 본 반면, 근대적 시민사회의 단초를 제공한 헤겔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민사회를 구분하였다. 가족은 우리가 지칭하는 시민사회와는 다른 가치와 원리를 지향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양자를 구분하였다.

지만, 시민사회를 너무 수평적이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결점이 있다. 시민사회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를 표상하는 시민이 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오늘날 시민은 고대사회의 특수계층, 중세 말 계몽주의시대의 자유민, 근대의 부르주아와는 달리, 정치공동체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모든 법적 구성원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시민사회를 표상하는 시민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시민은 단순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적 인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인간을 말한다. 나아가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를 제압하고 순화시켜 정의로운 삶을 위한 시민문화를 구성하는 주권자가 진정한 시민사회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7] 시민사회의 시민은 일정한 시민성을 지니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 자율적 시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구성하는 결사체가 시민사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는 한마디로 국가와 시장 바깥의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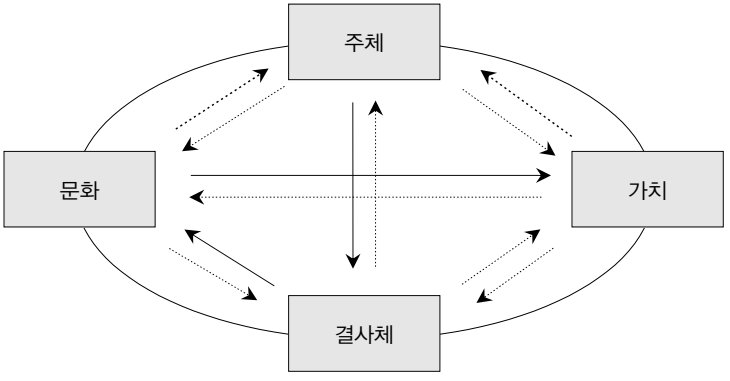
시민사회에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결사체가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결사체는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추동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각종 결사체들은 유

---

7) 이러한 규정은 다소 시민사회의 시민을 규범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의 시민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수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주체에는 강한 규범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그림 2〉 시민사회의 개념틀



기체처럼 꿈틀거리면서 자기목적을 추구하고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서로 연대한다. 따라서 결사체의 활동은 다양한 문화양식을 산출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양식은 국가나 시장과는 다른 가치를 생산하고 보지한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는 행위의 주체, 주체들의 결사체, 결사체가 산출하는 문화, 문화 속에 배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철학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구성물인 것이다(박상필 2010, 300-302). 〈그림 2〉는 이상 설명한 다차원적 시민사회의 개념틀을 보여주고 있다. 화살표의 방향은 영향관계를 가리키며, 실선과 점선은 정도를 차이를 말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사체를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단체의 목적에 따라 공익단체와 집단이익단체로 나눌 수 있다. 정신병원·사립학교·복지관·박물관·환경단체 등은 공익성이 강하지만, 상공회의소·의사협회와 같은 직능단체나 동창회·동아리와 같은

〈표 1〉 한국 비영리단체의 분류

구분			주요 단체
목적	조직유형	활동영역/기능	
공익단체	기관형조직	의료/보건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중등·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극장,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단체
	회원조직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생협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상조회

참고문헌: 박상필(2011, 151)

친목단체는 집단적 이익이나 개인적 취미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각종 종교단체를 어디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 않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익단체에 포함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종교단체를 공익단체에 포함시키는 데 반감이 있다.[8] 그리고 시민사회의 결사체는 기관형조직과 회원조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병원이나 학교, 고아원이나 미술관처럼 일정한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결사체가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직능단체·친목단체처럼 회원이 중심이 되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도 있다. 또한

8) 여기서는 종교단체를 공익단체와 집단이익추구단체의 중간에 위치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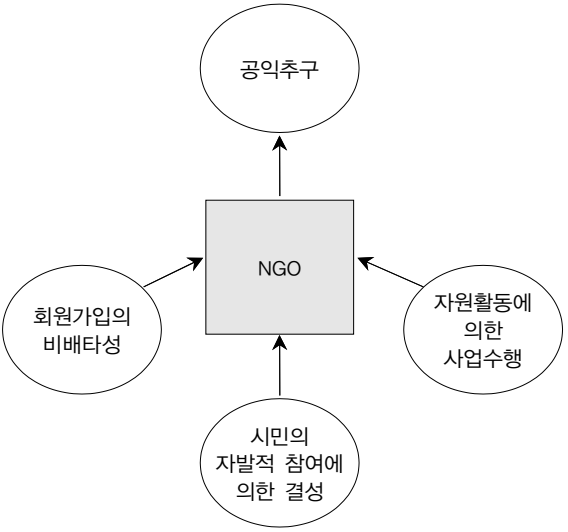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의 결사체는 활동영역이나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각종 결사체는 의료와 보건, 교육과 연구, 복지서비스, 예술과 문화, 시민적 결사, 종교, 직업적 이해, 사교와 친목 등과 같은 활동영역을 갖거나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 중에서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조직으로서 시민적 결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사회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public good)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민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NGO와 교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명제는 개념의 발생과정이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성과 범주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9] 각종 비영리단체(NPO) 중에서 시민사회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NGO는 실제로 어의적 개념과는 달리 매우 좁은 의미이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박상필 2011, 135-136). 한국 NGO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이다. 첫째, NGO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이다. 따라서 NGO는 정부에 의한 강제, 물질적 유인, 귀속적 관계에 의해 모인 단체와 다르다. 물론 여기서 참여는 온라인상의 참여도 가능하다. 둘째, NGO는 회원가입에 있어서 배타성이 없다. 따라

9) 한국에서는 1987년 6월항쟁 이전에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 있는 결사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중단체와 관변단체였고, 이 외에도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민단체라는 개념은 1989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개념적 권력을 획득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등 각종 국제NGO대회가 소개되면서 NGO라는 개념이 유입되면서 NGO라는 개념과 상호 교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와 NGO 간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132) 참조.

〈그림 3〉 한국 NGO의 개념틀



참고문헌: 박상필(2011, 138)

서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물론 특수한 단체에서 일정한 성·직업·능력·국적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셋째, NGO는 주로 자원활동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NGO는 특이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료화된 직원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물론 NGO에도 일정한 수의 유급상근자가 있지만, 활발한 자원활동은 NGO의 생명줄이다. 넷째, NGO는 공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NGO는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지향한다.[10] 물론 공익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질적인 산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활성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리더십의 학습, 신뢰·협력·연대 가치의 습득 등도 공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NGO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의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박상필 2011, 136-138).

3) 연구대상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NGO는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활동영역 혹은 기능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개 대영역, 55개 소영역으로 나뉜다.[11] 이렇게 할 경우, 개략적인 차원에서나마 각 영역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 2012년판은 20개 영역에서 12,657개의 NGO를 조사하였다. 2O개 영역별 조사된 단체의 수와 비율은 다음의 〈표 3〉과

---

10)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공익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공익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개념 자체의 존재나 유효성을 부정하는 학자도 많다. 특히 시민을 권력의 주체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공익이란 그 자체로서 논쟁적이며, 나아가 공익은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익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의 논리 외에도 현대철학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은 사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사회구성원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reasonable) 것이어야 한다. 공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상필(2011, 142-144) 참조.

11)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는 1997년 이후 매 3년마다 한국의 NGO를 조사하여 한국민간단체총람을 발행해오고 있다. NGO의 분류방식을 해마다 약간씩 변경해왔는데, 2012년에는 20개 대분류, 54개 소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12,657개 단체를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방식을 약간 변형하여 20개 대분류(권력감시를 정치/경제에 통합하고, 복지를 의료/보건과 복지로 분리), 55개 소분류로 하였다. 2012년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운동정보센터(2012), 박상필(2012) 참조.

같다. 복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치/경제, 환경, 청년/아동, 자원봉사 순이다.[12)]

〈표 2〉 한국 NGO의 분류

번호	대분류(20)	소분류(55)
1	환경	감시/정책제안, 환경보호, 교육/연구/계몽
2	인권	
3	평화/통일	평화, 통일/민족
4	여성	
5	정치/경제	권력감시, 제도개선, 과학기술, 정보, 지역자치, 의식계몽
6	교육/연구	교육, 연구, 학회
7	의료/보건	공중보건, 의료감시/조정
8	문화/체육	예술, 문화, 체육, 오락, 문화재, 기타문화
9	복지	복지일반, 장애인, 노인, 기타복지
10	청년/아동	청년, 청소년, 아동
11	소비자권리	
12	도시/가정	지역사회, 교통, 안전, 주택, 가정
13	노동/농어민	노동, 농어민, 빈민
14	외국인	외국인복지, 노동자, 다문화
15	모금/추모	모금, 기금, 추모회(기념사업회)
16	자원봉사	
17	국제협력	국제협력, 재외동포
18	대안사회	공동체, 협동조합, 교육/연구/계몽, 명상/요가
19	온라인활동	
20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3〉 한국 NGO의 영역별 분포도(2012)

번호	분류	단체수(개)	비율(%)
1	환경	1,491	11.8
2	인권	306	2.4
3	평화/통일	482	3.8
4	여성	687	5.4
5	정치/경제	1,681	13.3
6	교육/연구	622	4.9
7	의료/보건	336	2.7
8	문화/체육	991	7.8
9	복지	1,879	14.8
10	청년/아동	1,035	8.2
11	소비자권리	96	0.8
12	도시/가정	390	3.1
13	노동/농어민	347	2.7
14	외국인	240	1.9
15	모금/추모	31	0.2
16	자원봉사	905	7.2
17	국제협력	229	1.8
18	대안사회	182	1.4
19	온라인활동	179	1.4
20	기타	548	4.3
계		12,657	99.9

12) 원래 한국민간단체총람 2012년판은 정치/경제를 권력감시, 정치/경제로 분리하고, 의료/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여 복지로 조사하였다. 여기 있는 자료는 이 조사를 본 연구의 분류방식에 맞추어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4〉 영역별 인터뷰 대상자

분류	주요 영역	인터뷰 인원
시민단체	주창활동, 서비스생산, 대안운동, 자원봉사, 국제원조활동 등	400명
기타영역	연구소, 문화/예술/체육 기관, 장학 및 문화재단, 종교단체, 자율미디어, 직능단체, 친목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봉사활동	100명
계		500명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NGO)의 20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와 인터뷰를 실시한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활동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체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간급 간부(사무국장 또는 고위급 간사)를 말한다.[13]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타 영역의 활동가와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시민단체 20개 영역의 활동가 400명과 기타 영역 활동가 100명 등 총 500명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시민단체 20개 영역의 활동가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영역 NGO의 분포도와 비슷하게 배분한다.

인터뷰는 16개 광역시도에 걸쳐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73개 소도시 등 총 80개 도시를 포괄하도록 한다. 여기서 선정된 도시는 2012년 12월 현재 인구 10만 명 이상 74개 도시와 추가로 6개 도시를 합한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할 경우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경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많은 도시가 도농결합의 도시가 많아서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경시되지는 않을 것

13) 대표, 사무총장 등 고위급 활동가는 자신의 단체를 우호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으로 보인다. 광역도에서 농어촌에 위치하거나 이와 관련된 주제와 다루는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포함할 수도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단체가 위치하는 구역은 〈표 5〉와 같다.

한국민간단체총람 2012년판 12,657개 시민단체 중에서 주소를 알

〈표 5〉 인터뷰 대상자의 지리적 영역

번호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1	서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등 25개 구
2	부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16개 구
3	인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등 10개 구/군
4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등 8개 구/군
5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6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7	울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8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포천(동해, 철원)
9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화성, 평택, 시흥,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구리, 이천, 양주, 안성, 오산, 하남, 의왕
10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영월)
11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 서산, 논산, 보령, 당진
12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남원)
13	전라남도	여수, 순천, 목포, 광양(진도)
14	경상북도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상주, 영천(울릉)
15	경상남도	창원, 김해, 마산, 진주, 양산, 거제, 진해, 통영, 사천, 밀양
16	제주도	제주, 서귀포

* 괄호안은 인구 10만 미만 추가 선정 도시

수 있는 11,639개 단체의 지역별 분포도는 〈표 6〉과 같다. 서울은 3,372개 단체로서 전체의 29.0%를 차지하였고,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가 5,696개로서 전체의 48.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다(인구 대비로 볼 때, 서울의 1.4배).

〈표 6〉 한국 NGO의 지역별 분포도(2012)

번호	분류	단체수(개)	비율(%)
1	서울	3,372	29.0
2	부산	617	5.3
3	인천	472	4.1
4	대구	399	3.4
5	대전	390	3.4
6	광주	388	3.3
7	울산	270	2.3
8	강원도	443	3.8
9	경기도	1,852	15.9
10	충청북도	343	2.9
11	충청남도	410	3.5
12	전라북도	839	7.2
13	전라남도	452	3.9
14	경상북도	548	4.7
15	경상남도	589	5.1
16	제주도	255	2.2
계		11,639	1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인터뷰 대상자의 지역별 배분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시민단체의 분포도와 비슷하게 배분하려고 한다. 시민단체(NGO) 외 기타 시민사회단체(CSO) 활동가의 인터뷰 대상자 분포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의 전국적인 분포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시민단체의 비중과 비슷하게 하되, 이들 단체의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지역별 인터뷰 대상자의 분포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250명씩 비슷한 비중으로 하려고 한다. 여기서 가정하는 연구는 양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터뷰할 시민단체 활동가 400명은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나타난 단체의 분포도에 따라 지역과 활동영역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을 선정할 수 있고, 기타 영역 활동가 100명 역시 각 영역의 단체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영역에서 2~5명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지역별 인터뷰 대상자

분류	지역	인터뷰 인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50명
비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50명
계		500명

4. 연구내용

시민사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내용이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비쿠스(CIVICUS)는 시민사회의 역량 혹은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그것을 구조·공간(환경)·가치·영향력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CIVICUS 2011).[14] 그리고 박상필(2013)은 한국 시민운동의 역량을 측정하면서 그것을 환경·자원·조직화·영향력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두 모형에는 환경과 영향력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내용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아니라 현황파악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구성요소 중 핵심인 결사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환경은 주요한 요소가 아니고, 영향력은 주요 변수라기보다 연구내용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는 구조·가치·자원을 주요한 변수로 포함하도록 한다. 시민사회의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구조·가치·자원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결사체의 형성과 활동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에서 결사체의 형성부터 시작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벌이는 결사체의 활동까지 포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연구내용은 형성·구조·가치·자원·활동 등 5개 변수로 구성된다. 각 변수의 개념과 하위변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14) 시비쿠스 모형은 2008년 세계 29개국 시민사회 역량 비교조사에서 기존의 네 가지 차원을 시민참여(civic engatement), 조직수준(level of organization), 가치실행(practice of values), 영향력 인지(perception of impact), 외부환경(external environment)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변경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1) 형성

여기서 형성이란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가 어떤 방식으로 탄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결사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자가 핵심적인 인물을 규합하고 준비위원회 결성, 발기인대회, 창립대회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회원을 모집한다. 특히 단체의 탄생과정에서 핵심인물을 규합하고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는 주도자나 핵심인물의 사적/공적 인간관계가 중요한 동원맥락(mobilization context)으로 작용한다. 물론 하나의 결사체가 탄생하는 데는 내부적 요인만이 아니라 시대정신, 사회적 이슈, 법률과 정책, 언론보도 등과 같은 외부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존 단체의 존재와 활동도 새로운 결사체의 탄생과 일정한 연관을 갖는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형성에서는 핵심주체의 규합, 단체결성 절차, 사회적 환경, 기존 단체의 인지 등 4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형성의 주요 하위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형성의 하위변수 및 주요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주요내용
형성	핵심주체의 규합	단체의 핵심주체는 어떤 사람이고, 동지를 규합할 때 어떤 인간관계가 작용하는가
	단체결성 절차	단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 결성되고, 정관의 작성, 지도자나 활동가의 선출, 창립비용의 모금, 창립회원의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회적 환경	단체의 탄생에 시대정신, 사회적 이슈, 법률과 정책, 언론보도 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단체의 인지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존 단체는 새로운 단체의 결성에 어떤 연관을 갖는가

2) 구조

여기서 구조란 시민사회의 각종 조직이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CSO)는 정부나 기업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관료제적 계층제와는 다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원리 또한 다르다. 우선 시민사회단체는 관료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단계수가 적고 수평적으로 배열된 조직이 자체의 권한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의사결정에서 강제와 명령보다는 토론과 합의를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이 발달되어 있고, 상근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활발하다. 리더의 자질에서도 전문성이나 판단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의감, 인격과 열정도 요구한다(박상필 2011, 239).

조직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고 조직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회원이 단체의 주인으로서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근자와 회원 및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도 일방적인 명령이나 전달보다는 상호 협력과 교호의 관계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원리에 따라 내부 구성원의 인간관계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갈등도 주로 설득이나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비해 각종 조직활동이 공개되어 있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민사회단체의 회원가입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한다.[15]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에서는

15) 물론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회원조직인 시민단체(NGO)와 다른 기관형조직 간에는 이상 설명한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9〉 구조의 하위변수 및 주요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주요내용
구조	조직구조	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서의 권한행사가 어느 정도이며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의사결정 방식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서 합의를 중시하고 상근자의 참여가 활발하며 비판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의사소통	조직 내부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가
	풀뿌리 조직화	회원들이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투명화	조직의 각종 활동이 공개되고, 특히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가 일정한 주기로 공개되는가
	회원의 구성	회원의 가입이 개방적이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의사소통, 풀뿌리 조직화, 투명화, 회원의 구성 등 6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구조의 주요 하위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3) 가치

여기서 가치란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가 인간다운 사회를 구성하고 자기완성을 위해 지향하는 규범이나 이상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다른 운영원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시하고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다. 우선 시민사회가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안사회를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시민사회에는 국민국가를 넘어 아나키즘(anarchism)

과 관련된 각종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지역화폐·공정무역·공동체생활, 그리고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등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순화하는 다양한 시민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문명의 사상적 토대로서 아시아적 가치, 혹은 더 구체적으로 동북아적 사고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고 있다. 근대적 가치의 핵심인 이성을 넘어 영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희귀병환자·동성애자·병역거부자 등 각종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에서도 시민사회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비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더 친화적이고 이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는 달리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나 환경을 중시한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은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획일

〈표 10〉 가치의 하위변수 및 주요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주요내용
가치	대안문명의 모색	근대문명을 넘어 대안사회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 인지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예술과 환경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실천하는가
	관용과 협력의 중시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가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
	세계시민정신의 정도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정신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 경쟁을 중시하지만, 시민사회는 획일이나 경쟁보다는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의 규범을 중시한다.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민사회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능동성에 의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국가나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시민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가치에서는 대안문명의 모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 인지, 관용과 협력의 중시, 시민참여, 세계시민정신의 정도 등 6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 설명한 가치의 주요 하위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4) 자원

여기서 자원이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인지하고 이것을 동원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을 운영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필요한 자원과 이를 동원하는 방식은 정부나 기업과는 다르다. 우선 재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이 중요한 재정적 원천에 해당한다. 기부금에도 개인·재단·기업 등 그 원천이 다양하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금·수익사업이익금 등이 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회비와 기부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비와 기부금 외에는 정부지원금이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단체의 활력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자원에서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어떻게 모집·활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기여도가 기부금을 능가한다는 연구보고가 많다.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도 살펴보아야 한다.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단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근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근자의 충원과 자기계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요한 자원에 해당한다.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이러한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활용하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 간의 연대활동이나 공동세미나 등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특히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다. 또한 시민운동이 대중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지식인의 참여가 없는 대중운동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지식인과 대중의 교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지식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16]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자원은 돈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규범이나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

16) 물론 지식인의 과도한 참여는 시민운동에서 일반인의 소외를 초래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형성은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뢰·관용·협력·공동체정신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어떻게 발생하여 단체의 목적 성취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에서는 재정의 원천,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 정부지원금,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상근자의 충원과 자기계발, 정보의 획득과 활용, 지식인의 참여, 사회자본의 형성 등 8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자원의 주요 하위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자원의 하위변수 및 주요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주요내용
자원	재정의 원천	재정의 원천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원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	회비와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상근자의 충원과 자기계발	상근자를 어떻게 충원하고 능력증진을 위해 어떠한 교육과 자기계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의 획득과 활용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식인의 참여	어떤 지식인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단체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회자본의 형성	어떤 사회자본이 어떻게 발생하여 단체의 목적성취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5) 활동

여기서 활동이란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라고 지칭할 때, 먼저 시민운동이 어떻게 조직되고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문제정의, 이슈제기, 집행부의 구성, 프로그램 운영, 대중동원, 정치적 지지 획득 등을 포함한다. 물론 시민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단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나 서명운동, 상담과 교육, 치료와 간호, 공청회·세미나 개최, 감시활동, 사법부 고발, 불복종운동이나 불매운동, 집회나 시위, 사이버 활동 등도 포함한다. 특히 사이버 활동이 어느 정도로 활발한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공공선(public good)을 증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특히 거버넌스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언론과의 관계는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전략적 동맹(strategic coalition)도 중요하다. 물론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미디어의 구축 정도와 행사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뉴스레터의 발행이나 시민방송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구축, 블로그의 활용, 회의나 시민운동의 현장 중계, 트위터의 사용 등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정부와 언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최근에는 시장의 가치가 확산되고 대기업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활발하고, 반대로 기업의 사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공헌활동의 증대나 사회적 기업의 발달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활동은 개별 단체의 독자행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양한 형식의 연대를 통해 진행된다. 그리고 연대는 시민사회 내의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바깥의 정당·노동조합·언론, 심지어 정부나 기업, 그리고 유엔기구나 국제조직과 함께 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대의 주제·대상·방식은 활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국제협력이나 연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후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에서 국가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러한 서비스생산은 광의적 의미의 시민운동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서 볼 때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구체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시민운동의 영역이긴 하지만 별개로 다루어야 또 다른 영역은 시민사회의 자기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윤리를 정립하고 도덕적 능력을 가져야 하고, 공공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동성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시민이 존재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civic education)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

〈표 12〉 활동의 하위변수 및 주요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주요내용
활동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개	시민운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가
	정부와의 관계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영향력 증대를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며, 거버넌스가 어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언론과의 관계	언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며, 자율미디어와 SNS의 구축정도와 활용방식은 어떠한가
	기업과의 관계	기업에 대한 견제와 기업과의 협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대활동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시민사회 바깥의 행위자와는 어떤 주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지는가
	국제협력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는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생활문제의 해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각종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자기정당성의 강화	시민사회의 도덕적 능력을 증대하고 능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에서는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개, 정부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 연대활동, 국제협력,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생활문제의 해결, 자기정당성의 강화 등 8개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활동의 주요 하위변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이상 설명한 핵심변수 각각의 하위변수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5개 핵심변수를 구성하는 32개 하위변수를 구체적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된다. 32개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13〉 연구내용의 주요 변수

핵심변수	하위변수
형성	핵심주체의 규합, 단체결성 절차, 사회적 환경, 기존 단체의 인지(총 4개)
구조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의사소통, 풀뿌리 조직화, 투명화, 회원의 구성(총 6개)
가치	대안사회의 모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 인지, 관용과 협력의 중시, 시민참여, 세계시민정신의 정도(총 6개)
자원	재정의 원천,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 정부지원금,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상근자의 충원과 자기계발, 정보의 획득과 활용, 지식인의 참여, 사회자본의 형성(총 8개)
활동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개, 정부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 연대활동, 국제협력,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생활문제의 해결, 자기정당성의 강화(총 8개)

5. 맺음말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실천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적이고 정치한 연구모델이 개발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명제이다. 시민사회 연구에서 질적

수준이란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조·맥락·행위 등의 내용·방식·원인 등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를 내부적 관점에서 비교하기보다 외부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분석틀에서 핵심변수와 하위변수가 포괄성(exhaustiveness)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변수의 배타성(exclusiveness)과 동일수준(same level)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연구모델은 핵심변수와 하위변수의 포괄성에 중점을 두고 배타성과 동일수준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분석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민사회는 특히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다. 심지어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인식적 합의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에 대한 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제시한 연구모델이 횡단적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총체적 현황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모델이 개발된다면 일정한 주기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종단적인 연구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고문헌

고성국. 1994.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 비교 연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서 학진 연구보고서.

김광식. 1999. 『한국 NGO』. 동명사.

김성국. 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유팔무·김정훈 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한울.

박상필. 1998. “시민단체의 자주성과 공익활동능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1.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_____. 2004.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NGO연구』 2(1). 99-139.

_____. 2010. 『국가 시장 비판: 자기완성 원천으로서의 시민사회 재발견』. 한울.

_____. 2011. 『NGO학: 자율·참여·연대의 동학』(개정판). 아르케.

_____. 2012. “2012년 한국민간단체총람 조사결과 분석.” 『내나라』 제21권. 8-21.

_____. 2013. “시민운동 측정모형의 개발.” 『비영리연구』 12(1). 3-32.

박원순. 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손호철. 2001.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의 대안인가?” 유팔무·김정훈 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

신명순. 1995.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화과정에서의 역할.” 안병준 외.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유팔무. 1995. “한국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유팔무·김호기 공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유팔무·김호기(공편). 1995.『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이남주 외. 2005.『아시아의 시민사회 2: 현재와 전망』. 아르케.
정태석. 2007.『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주성수. 1999.『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외. 2006. "한국시민사회지표: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아르케.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1992.『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CIVICUS. 2011. *Bridging the Gaps: Citizens, Organizations and Dissociation*(Civil Society Index 2008-2010 Program Description).
Cohen, Jean,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Gamwell, Franklin. 1984. *Beyond Preference: Liberal Theories of Independent Associ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amsci, Antonio. 1978.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uintin Hoare and Geoffrey Smith, ed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이상훈 역. 1987.『그람시의 옥중수고 I』. 거름.
Habermas, Jü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II*. T. McCathy Trans. Boston: Beacon Press: 장춘익 역. 2006.『의사소통행위 이론 I, II』. 나남출판.
Hegel, Georg Wilhelm. 1970.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Hamburg: Felix Meiner Verlag: 권응호 역. 1990.『법철학 강요』. 홍신문화사.
Held, Davi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이정식 역. 1989.『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Keane, John.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Kramer, Ralph. 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Locke, John. 1952.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정인·문지영 공역. 1996.『통치론』. 까치.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lamon, Lester.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Second ed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Tocqueville, Alexis de. 1957.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ntage Books: 임효선·박지동 공역. 1997.『미국의 민주주의 I, II』. 한길사.

Van Til, Jon. 2000. *Growing Civil Socie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Wuthnow, Robert. 1991. "The Voluntary Sector: Legacy of the Past, Hope for the Future?" Robert Wuthnow, ed. *Between States and Mark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투고: 2013.3.8　심사: 2013.10.12　확정: 2013.11.5

〈부록 1〉 형성의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구체적 내용
형성	핵심주체의 규합	• 단체의 핵심주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 동지를 규합할 때 어떤 인간관계가 작용하는가 • 사적 인간관계와 공적 인간관계의 작용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
	단체결성 절차	• 단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 결성되는가 • 정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 • 지도자나 활동가는 어떻게 선출하는가 • 창립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창립회원은 어떻게 모집하는가
	사회적 환경	• 단체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무엇인가 • 단체의 탄생에 시대정신이나 사회적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단체의 탄생에 법률이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단체의 탄생에 언론의 보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단체의 인지	• 단체를 결성할 때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존 단체를 의식하는가 •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존 단체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

〈부록 2〉 구조의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구체적 내용
구조	조직구조	• 조직의 계층구조가 어떤가 • 각 부서의 자율적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 네트워크의 형태가 어떠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의사결정 방식	• 의사결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가 • 의사결정에 상근자의 참여가 활발한가 • 내부 비판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 민주적 리더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의사소통	• 내부에 다양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 내부 조직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가 • 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가
	풀뿌리	• 회원들이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화	• 회원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상근자와 회원 및 자원봉사자는 상호 협력관계인가
	투명화	• 조직의 각종 활동이 공개되어 있는가 •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가 일정한 주기로 공개되는가
	회원의 구성	• 회원의 가입이 개방적인가 •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부록 3〉 가치의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구체적 내용
가치	대안사회의 모색	•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정신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거나 순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가 • 새로운 문명건설의 사상적 바탕으로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가 • 영성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점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는가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가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가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 인지	•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가 • 환경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
	관용과 협력의 중시	• 인간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가
	시민참여	•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중시하는가 •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는가
	세계시민정신의 정도	•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 세계시민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부록 4〉 자원의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구체적 내용
자원	재정의 원천	• 재정의 원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각 원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	• 회비와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 회비와 기부금을 증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정부지원금이 가진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가 • 정부지원금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가 •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증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 모집한 회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용	•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가 • 자원봉사자를 증대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 모집한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상근자의 충원과 자기계발	• 상근자는 어떻게 충원하는가 • 상근자의 능력증진을 위해 어떠한 교육 및 자기계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의 획득과 활용	•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획득하는가 • 획득한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식인의 참여	• 주로 어떤 지식인이 참여하는가 • 지식인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참여한 지식은 단체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지식인의 참여가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사회자본의 형성	• 주로 어떤 사회자본이 생성되는가 • 사회자본의 생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 사회자본을 단체의 목적성취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록 5〉 활동의 하위변수의 구체적 내용

핵심변수	하위변수	구체적 내용
활동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개	• 시민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가 • 시민운동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가 • 집행부의 구성과 대중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시민운동은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 사이버 시민운동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가
	정부와의 관계	•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정부에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 거버넌스는 어느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언론과의 관계	• 언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 자율미디어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자율미디어의 구축과 활용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기업과의 관계	•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기업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가
	연대활동	• 시민사회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는가 • 시민사회 바깥의 행위자와도 연대가 이루어지는가 •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활발한가 • 국제적인 연대활동에서 유엔이나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제협력	•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 국제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생활문제의 해결	• 어떤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는가
	자기정당성의 강화	• 시민사회의 도덕적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각종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